

‘아시아쿼터 1순위’ 장위 “페퍼스 봄배구 목표로 최선”



197cm 최고 높이로 수비력 등 전력 보장
팀에 잘 적응, 많은 득점으로 탈꼴찌 이룰 것

‘아시아쿼터 최대’ 장위가 다가오는 2024-

2025시즌 V리그에서 페퍼스를 봄배구로 이끌 수 있을까.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 5월 2024 KOVO 여자부 아시아쿼터 드래프트 1순위로 중국 국적의 미들블로커 장위를 영입했다.

장위는 2013년 중국 리그 베이징 BAIC 모터를 시작으로 꾸준히 활약하며 리그 베스트 미들블로커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U23 중국 국가대표로 AVC 아시안 챔피언십에서 우승에 기여하는 등 기량을 다져왔다.

지난 2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적응의 시간을 보낸 장위는 “한국에서의 적응이 어려울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막상 사는 방식이나 음식이 중국

과 비슷해 한시를 덜었다”고 말했다.

페퍼스는 신장 197cm 장위의 영입으로 높은 타점을 활용한 ‘수비력 보완’과 ‘공격 성공률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장위는 “훈련한 지 일주일도 채 안됐지만 합을 잘 맞춰나가고 있다”며 “아직 모든 방면에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리시브가 잘 안되는 처리성 불을 처리하는 것이 나의 강점이다. 나의 높이와 볼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약점을 줄여나가면서 팀에 잘 적응하려 한다”고 훈련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 선수들 스파이크 하는 자세나 곡률이 중국 선수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한국 선수들이 공을 놓치는 일이 훨씬 적은 것 같다”고 느낀 점을 밝혔다.

장위는 팀에 합류한 후 가까이 지내고 있는 선수로 주장인 박정아를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세터와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주로 진행하기도 했고 박정아가 중국어를 배워 장난을 많이 걸어온다”며 “매일 ‘좋은 아침’, ‘밥 많이 먹어’와 같은 일상 대화를 나눠서 빨리 친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장위는 같은 미들블로커 포지션 출신의 장소연 감독에 대해 “공격 들어갈 때 스텝을 밟는 타이밍이나 스파이크 타이밍, 공격 시 팔의 위치와 같은 부분을 세밀하게 보고 조언해 주신다”며 “훈련 외적으로도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개인적인 컨디션 체크부터 사소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신다”고 말했다.

장위의 목표 역시 ‘봄배구’다.

그는 “선수단과 감독, 코치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그 부분이 나를 더 열정적으로 만든다”며 “페퍼스가 ‘봄배구’를 갈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 “개인적으로는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팬들이 나와 구단에 보내주는 응원과 관심을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 그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2024 KOVO 여자부 아시아쿼터 1순위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에 합류한 미들블로커 장위가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인터뷰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육상팀, 전국대회서 금빛 활약

백제왕도 익산 2024 육상대회
김태효 100m·정일우 포환던지기 금

광주·전남선수단이 ‘백제왕도 익산 2024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 활약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태효(광주시청)는 시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태효는 남일부 100m 결승에서 이날 초속 1.5m의 앞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초37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광주시청 육상팀 심재용 감독은 “김태효가 대표팀에서 뛰느라 올해 상반기는 제대로 대회에 나서지 못했는데 이번에 100m 첫 우승으로 사동을 걸었다”며 “전국체전이 다가오는 만큼 컨디션을 제대로 끌어올려 단거리와 계주 모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신기록 보유자” 정일우(여주시청)는 포환던지기에서 17m54로 1위를 기록했다.

김동욱(나주시청)은 1500m에서 3분55초6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800m에서 1분52초00으로 동메달을 뒀다.

여자일부에서는 남보하나(진도군청)가 3000m장애물 경기에서 10분19초89기록으로 본인 최고기록 경신(종전 10분21초15)과 함께 우승을 차지했다. 이 기록은 한국 역대 3위에 해당한다.



‘백제왕도 익산 2024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일부 100m에서 우승한 광주시청 김태효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이아영(광양시청)은 여일부 200m에서 24초46으로 1위, 신소망(나주시청)은 여일부 1500m에서 4분28초28로 1위를 차지했다.

해머던지기에서는 박서진(목포시청)이 60m

69의 기록으로 1위를 기록했다.

중·고등부에서도 메달이 이어졌다.

여중부에서는 정해진(전남체중)이 100m와 200m에서 2관왕을 기록했다.

광양백은중 이하은은 여중부 멀리뛰기에서 1차도와 만에 5m09를 뛰어 11명 중 유일하게 5m대를 넘어 1위를 기록했다. 이하은은 세단뛰기에서도 동메달을 뒀다.

포환던지기에서는 김태빈(목포하당중)이 13m07로 1위에 자리했다.

남중부에서는 정현담(전남체중)이 세단뛰기에서 13m22로 금메달,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고부에서는 서예지(광양하이텍고)가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포환던지기에서는 문혜솔(전남체고)이 13m55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은빈(전남체고)는 100m 1위, 최지선(전남체고)은 여고부 400m와 200m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고부에서는 고준희(광양하이텍고)가 멀리뛰기에서 7m23으로 1위에 올랐고 세단뛰기에서는 은메달을 뒀다.

여대부 멀리뛰기에서는 조선대 박강빈이 5m20으로 1위를 차지했다.

1600m 혼성계주에서는 전남체중(김이랑, 윤제리, 정해진, 김유진)이 중등부 1위를 합작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족구협회, 대한체육회장기 종합우승



전남족구협회가 전국족구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족구협회는 지난 6-7일 이틀간 진도 아리랑체육공원축구장에서 치러진 ‘제11회 대한체육회장기 사·도대학 전국족구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전국인원부 ▲남·여체전부 ▲일반부 ▲40·50·60대부 ▲전국고등부 등 전국부 8개 ▲진도 관내부 ▲전남3부 총 10개부에 128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전남족구협회는 전국인원부에 출전해 8강 부진에 이어 제주도협회(2-1)와 대한족구협회(2-

0)를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전남족구협회 소속팀들의 활약도 이어졌다.

40대부에서는 ‘광양에이스’팀이 2위, 50대부에서는 ‘전남50’팀과 ‘광양두발로’팀이 3위, 전국고등부에서는 ‘전남고등부’가 2위를 차지했다.

전남족구협회는 최종 집계 결과 우승 1팀, 준우승 2팀, 3위 2팀을 배출하며 종합우승을 이뤘다.

장유신 전남족구협회 회장은 “우리 도 소속팀들의 활약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남 족구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

여자배구 U20 대표팀,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3위

세계청소년선수권 출전권 획득

한국 U20 여자 배구 대표팀이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달성했다.

장윤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9일 중국 장먼에서 치러진 제22회 아시아배구연맹(AVC) 여자U20배구 선수권 3위 결정전에서 세트 스코어 3-1(25-21, 18-25, 25-22, 25-23)로 태국을 꺾었다.

이날 한국은 세터 김다은(목포여상)·미들블로커 김세민(한국도로공사)과 이지윤(중앙여고)·아웃사이드 히터 이주아(목포여상)와 전다빈(중

앙여고)·아포지 이재영(한봉고)이 선발로 나섰고, 리베로는 박채민(강릉여고)이 출전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 리그에서 대만(3-0)과 뉴질랜드(3-0)를 모두 셋아웃으로 누르고 D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인도(3-0)와 일본(1-3)을 상대로 1승1패를 기록한 한국은 4강행에 성공하며 1-4위까지 주어지는 2025 세계청소년선수권 출전 티켓을 손에 넣었다.

전날 치러진 중국과의 준결승에서 1-3으로 패한 한국은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3위 결정전을 통해 순위권에 자리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대회 결승에서는 중국이 3-2(23-25 25-21 25-17 14-25 15-10)로 일본을 꺾고 8년 만에 여자U20배구선수권대회 챔피언 자리를 되찾았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Romantic>
일시 : 2024-07-18(목)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Romantic>
일시 : 2024-07-18(목)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